

코로나19와 한국 공연문화의 변화

배나래*, 최석권**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e-mail:victory0302@hanmail.net

COVID-19 and Changes in Korean Performing Arts

Na-Rae Bae*, Suk-Kwon Choi**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Daej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5 SeungMu Heritage Skills Teaching Assistant 1**

요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코로나 19로 여전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설명할 만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 초기에는 모든 전통문화예술활동이 중단 될만큼 어려움이 대단히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연계는 무관중으로 공연, 사회적 거리두기 공연 등을 기획하여 바이러스 확산은 최대한 차단하며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공연자와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해 사례연구를 실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현재의 공연 문화의 가치를 성찰해 보고 미래의 공연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3. 결론

전통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은 현장감과 친근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써 공연의 흥미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공연계에서도 전례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고 현장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공연문화의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연을 하는 공연자와 예술가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과연 앞으로의 공연문화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 미래의 공연문화를 예상해보고 미래 공연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로 공연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공연계는 비대면 공연을 실시하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공연을 실행하는 공연자들은 소통하고 교감 속에서 맛볼수 있는 공연의 신명이나 흥을 느낄 수 없으며 공연을 하며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코로나19는 관객들에게도 좋은 공연을 마음껏 볼수 없다는 어려움을 주었지만, 공연자들에게도 비대면속에서 홀로 공연을 펼쳐야 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2020년 9월1일~9월30일까지 D광역시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참고문헌

- [1] 박인배, 최치성, “전통공연의 관객과 눈 맞추기”,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제2권, pp13-28, 2013년.
- [2] 조석연, “전통공연유산의 지속과 변화”, 한국공연문화학회, 제32권, pp399-426, 2016년.
- [3] 김순호 “한국의집 전통예술공연의 가치와 미래 전략 연구”, 국립국악원, 제33권, pp9-33, 2016.